

|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  |
|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|
|  국토교통부 |        | <b>보도참고자료</b> |   |
|   |        | 배포일시          | 2019. 1. 4(금) / 총2매(본문2)  |
| 담당<br>부서  | 부동산평가과 | 담당자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한정희, 사무관 김세묵</li> <li>• ☎ (044) 201-3425</li> </ul> |
| 보도일시  |        |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  |   |

## **국토부는 부동산가격공시의 주체로서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.**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현행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유형·지역·가격대별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화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 등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.
  - 특히 단기간에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,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개선할 계획이며, 이에 대해서는 그간 국토교통부는 여러차례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.
- 국토교통부장관은 「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·평가 및 최종 공시 주체로서,
  -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, 공시가격 조사·평가 보고서 심사 과정에서도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.
-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순 표준지공시지가(안)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 실무자가 심사 담당자(감정평가사 등)에게 그동안 시세가

급등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.

\*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 간 4차례 가격균형회의도 모두 실시한 바 있음

□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의견청취 중으로 소유자 의견을 검토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'19.2.13일에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.

※ 표준주택 공시일 '19.1.25, 공동주택 공시일 '19.4.30

< 관련 보도내용 (조선일보, 1.4(금).) >

◆ 공시지가 2배 인상, 정부가 지침 내렸다.  
- 땅값 비싼 곳 100% 인상 지침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김세목사무관(☎ 044-201-34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